

“그냥 쉽니다”...실업자에도 안잡히는 ‘취포자’,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됐던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휴게소의 식당에 불이 꺼져 있다. 지난달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쉬거나 심지어 취업을 포기한 이들이 모두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동월 기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이들은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경제활동인구로 계산하는 실업률에는 잡히지도 않는다.

17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6000명(13.1%) 증가했다.

실업률 역시 3.6%로 1년 전보다 0.5%p 상승했다. 이는 2000년 9월(4.0%) 이후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실업 상태로 볼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쉬었음' 인구나 '구직단념자'다. 이들은 구직 활동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이라고 답한 이들은 241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8만8000명(13.6%)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동월 기준 최대치다.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채용 중단 등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64만5000명으로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기준 '쉬었음'·'구직단념자' 인구 역대 최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돼 실업률엔 포착 안 돼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 2002년 이후 최저 기록

정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유입 자체가 감소”

이렇게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8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3만 2000명(3.3%) 증가했다.

1999년 통계 개편 이후로 동월 기준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에는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일을 한 시간이 '0'시간인 일시휴직자도 크게 늘었다. 9월 일시휴직자는 7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41만6000명(111.8%)이나 급증했다.

역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서 끊겼던 재개됐던 정부의 노인 일자리가 8월 재확산 이후 다시 중단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시 휴직자는 무급 휴직이어서 복귀가 확실하고 무급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취업자로 집계된다. 하지만 무급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꼽힌다. 결국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고용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법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취업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고용 상황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상황이 전적으로 악화되면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고용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향후 나아질 여지가 있으나 당장은 재정일자리 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시·일용직 이어 이제는 상용직도...일자리 증가폭 18년래 최저

지난달에는 상용직 근로자의 취업자 증가폭도 약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고용 총액의 여파가 임시직·일용직에 그치지 않고 상용직 일자리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6000명대에 그쳤는데, 이는 2002년 5월(9만4000명) 이후 18년4개월 만의 최저 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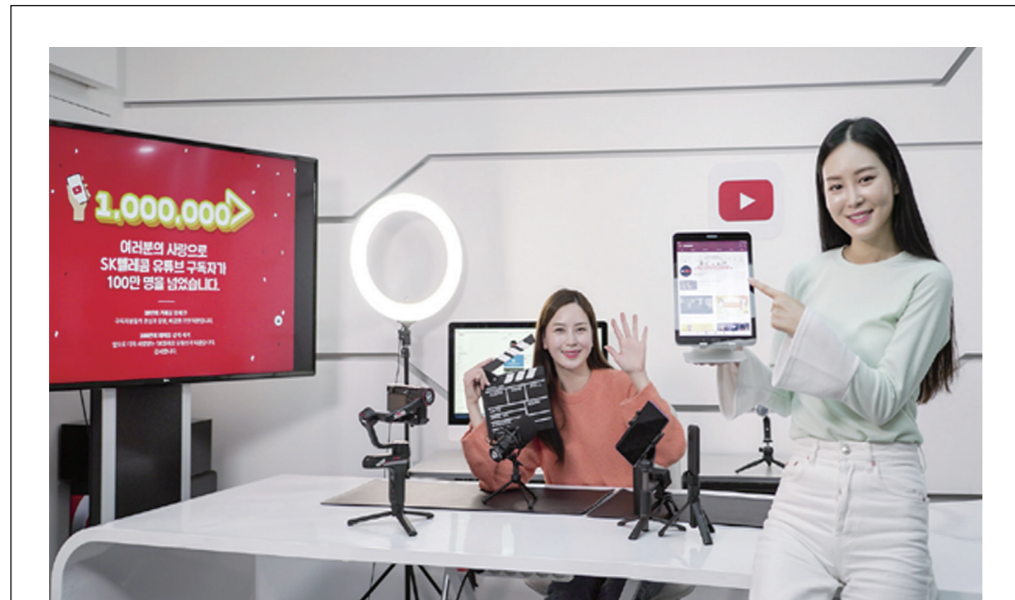
상용직 일자리 증가폭 축소 흐름은 올해 들어 내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61만6000명이었던 증가폭은 3월 45만9000명, 4월 40만 명, 5월 39만3000명, 6월 34만9000명, 7월 34만6000명, 8월 28만 2000명까지 줄었다. 그러다 지난달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는 예년 연평균 증가폭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작년 연평균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은 44만4000명, 그 전 해인 2018년에는 34만5000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제조업·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경기가 얼어붙자 고용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이 먼저 타격을 받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용직까지 여파가 커져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용직 채용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일자리 유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미희기자



SKT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

2년 새 구독자 4배 증가...누적 시청 횟수 약 8억 3200만회

SK텔레콤 자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SKT는 지난 2011년 공식 채널을 개설한 지 10년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

특히 2018년 12월 말 24만명이었던 구독자 수 규모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약 4배 급성장했다.

SKT는 이 같은 빠른 성장세의 배경으로 ▲전문 유튜버와의 협업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채용 등 고객 관심 정보 ▲사회적 가치 창출 디지털 캠페인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를 TV CF 영상 등을 저장하는 아카이브(archive)로 활용하던 것을 넘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자체 제작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전략이 통했다고 분석했다.

◇소통 위해 전문 유튜버부터 임직원까지 출동...채용 정보도 인기

SKT는 이번 구독자 100만 돌파를 맞아 지금까지의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유튜브를 시청하는 20~50대 전국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기업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주된 이유는 정보 획득이며, 시청자들은 기업 콘텐츠를 통해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다고 응답했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기업 유튜브 콘텐츠에 전문 유튜버가 등장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해주는 콘텐츠에 높은 호감을 보였다.

서선욱기자

SKT는 작년 4월부터 'feat.크리에이터'라는 코너를 개설해 '공돌이 용달',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 이승윤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및 인기 유튜버와 협업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 유튜버 '공돌이 용달'과 함께 휴대폰 속 개인정보 삭제를 점검해보고, 이승윤 교수와는 SKT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맛집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응답자들은 전문 유튜버가 등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소개해주는 내용이 전문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고, 쉽게 설명해줄기 때문에 친근감이 들어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대 시청자들은 사내 구성원이 직접 출연한 영상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대 응답자들은 사내 구성원이 소개하는 내용이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채용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내 구성원 출연 영상을 통해 회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KT는 작년 6월부터 '초코초코한 리부' 코너를 개설해 사내 공모를 통해 선발한 직원 크리에이터 2명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 관점으로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영상을 꾸준히 게재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구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채용 관련 정보와 5G 기술을 활용해 동물 보호 메시지를 전파한 '동물 없는 동물원' 캠페인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영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홈게임족' 위한 고성능 게이밍 기어 '인기'

로지텍 G733 무선 헤드셋, 초도 물량 '완판'

최근 출시된 게이밍 기어가 게이머들 사이에서 인기다.

특히 튀는 디자인으로 게이머들을 사로잡은 게이밍 헤드셋이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고성능 그래픽카드는 품절 대란을 넘어 유통 구조에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특히 '홈게임족'들은 지갑을 열며 완판 대란을 주도하고 있다.

◇특색 튀는 디자인으로 초도물량 완판된 '로지텍 G 733 무선 헤드셋'

지난달 출시된 로지텍 게이밍 기어의 '컬러 컬렉션'이 게이머들 사이에서 관심이 뜨겁다. 17일 로지텍코리아에 따르면, 컬러 컬렉션 라인업 중 하나인 로지텍 G733 무선 헤드셋은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

로지텍 G733 무선 헤드셋은 화이트, 블루, 라일락, 블랙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해 다양한 스타일의 게이밍존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278g의 가벼운 무게와 화려한 디자인의 리버시블 서스펜션 머리띠가 특징이다. 머리과 귀 모양에 맞는 부드러운 이중층 메모리폼 이어 패드가 장착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라이트스피드(LIGHTSPEED) 무선 연결을

지원해 20M 반경까지 사용할 수 있다. 풍부한 사운드로 게임의 몰입감을 높여주는 프로-G 드라이버, 로지텍 G 허브를 통한 커스터마이징 등 무선 게이밍 헤드셋으로서 기본기도 놓치지 않았다.

◇그래픽카드 품절 대란 '엔비디아 RTX 30 시리즈'

게이밍 PC를 장만하고자 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는 당면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래픽카드 시리즈다. 압도적인 성능에도 전력효율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으더니 없어서 못 팔 지경에 이르렀다. RTX 3090·3080·3070 등 3개 모델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2세대 RTX 아키텍처인 '암페어(Ampere)' 기반으로 만들어져 이전 세대 대비 최대 2배 빠르게 FP32를 처리하며 전력 효율도 1.9배나 개선됐다.

가격은 전자 RTX2080보다 2배 빠른 RTX3080이 699달러, RTX2070보다 60% 빠른 RTX3070은 499달러로 사실상 이전 시리즈와 동일한 수준이다. PC 그래픽카드 중 최고 사양을 갖춘 타이탄 RTX는 3000달러 선인데 50% 빠른 RTX3090의 가격은 1499달러로 절반에



로지텍 G733 게이밍 헤드셋 무선 4가지 색상 불과하다.

◇콘솔 시장 격변 예고한 엑스박스 시리즈 X

콘솔 게이밍 시장도 신제품 출시 이슈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11월 10일 차세대 콘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엑스박스 시리즈 S'를 전 세계에 출시한다. 콘솔 시장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발매 일정과 시기를 소니보다 먼저 내놓으면서 차세대 콘솔 기기를 통해 시장 선전에 도전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월 이용료로 형태로 구매 가능한 '엑스박스 올 액세스' 프로그램도 확대 개시하며 콘솔 이용에 있어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로, PC 및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장치를 위한 고품질 게임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올 연말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야놀자, '키즈 레저 연간이용권' 최대 35% 할인 판매

이용권 구매 시 식당·쇼핑몰 등 부대시설 최대 80% 할인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키즈 레저 연간이용권 단독특가전'을 진행하고 18일 밝혔다.

야놀자는 오는 25일까지 '아이야놀자' 카테고리별 통해 테마파크와 아쿠아리움 이용권을 온라인 단독 특가로 판매한다.

먼저 키즈 레저의 인기 상품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이월드 연간이용권을 성인권 기준 최대 33%, 소인권 기준 최대 35%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용권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일부 시설은 식당, 쇼핑몰 등 부대시설 이용 시 최대 8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코엑스 아쿠아리움 이용권을 51% 할인 판매한다.

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특가 상품을 카카오페이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 차이로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50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결제 할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야놀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정 야놀자 마케팅실장은 “아동 동반 고객들의 방문 빈도가 높은 인기 레저시설들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이용권을 온라인 단독 특가로 선보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즌별 인기 여가상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가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